인터넷 개인 방송국 '열풍'

캠 카메라·PC 있으면 쉽게 설치

재주·끼 맘껏 발산 '나만의 방송'

새 미디어 문화로 네티즌에 인기

"아씨, 잠깐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가슴도 아프고. 숨도 못 쉬겠다.(뿌우욱)"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에서 '개그지향중독방송'이라는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BJ (브로드캐스팅 자키) MC인진의 방송. 음악에 맞춰 방귀를 뀌는 엽기적인 방송에 진행자와 시청자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한다. 이처럼 공중파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감한(?)방송이 등장했다. 일반인들이 시청을 벗어나 아예 제작에 나선 것이다.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쉽게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아프리카'(www.afreeca.com), '판도라TV'(www.pandora.tv), '쌩쇼방송 SSBS TV'(http : //ssbs.cyworld.com/)이다. 특히 네티즌들의 색다른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개인 방송은 방송이 가지는 모든 편견을 깨뜨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개국한 '아프리카'는 넉달만에 개인 TV방송 채널이 600만개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상시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채널도 500~600개에 이른다.

이용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3월 150만 이었던 월 방문자 수는 7월 300만 명으로 2배 증가했다. 동시 접속자 수도 3월 2.5만 명, 5월 3만 명, 7월 4만 명 등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방송의 특징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 없이 웹캠 카메라와 PC용 수신카드만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 '아프리카'의 경우 장비가 없더라도 '라이브캠'이라는 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방송할 수 있다. 전용 플레이어만 설치하면 쉽게 채널을 골라보면서 채팅과 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아이템도 개인 인터넷 방송만의 특징이다. 프로게이머뿐 아니라 아마추어의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중계하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음악 방송이 신청곡을 틀어주듯 시청자의 신청을 받아 영화나 드라마를 방송하는 채널도 있다.

아프리카TV를 자주 방문한다는 정성주(여·15·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양은 "축구 중계를 보더라도 TV에서는 아나운서가 정제된 언어로 설명하지만 인터넷 방송은 우리 또래가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해 재미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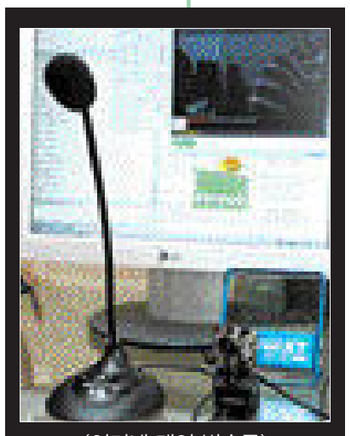
박호철(25·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어떤 내용이나 형식에 상관 없이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청취자(시청자)와의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이 인터넷 방송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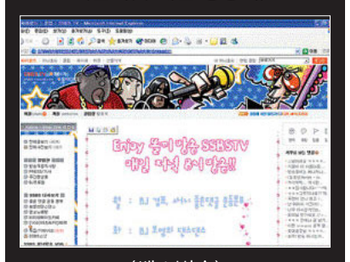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 중계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데다, 손쉽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인 방송이 판을 치고 있다. 속어와 욕설이 오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나우콤 박은희 팀장은 "금지어 검색 불가, 24시간 모니터링, 청소년 보호 등 클린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성숙한 네티즌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생쇼방송 SSBS TV'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BJ. 〈사진제공=나우콤〉


〈인터넷 개인 방송국〉


〈쌩쇼방송〉

〈판도라 TV〉

〈아프리카〉

1 제17548호 2판
2006년 9월 9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그래미상 받은 믹싱 디렉터 스티브 하치

이승철 8집 음반작업 참여

가수 이승철이 세계적인 팝스타 재닛 잭슨의 믹싱 디렉터인 스티브 하치와 손잡고 21일 8집을 발표한다.

8집 수록곡 전곡의 믹싱을 맡은 스티브 하치는 마이클 잭슨, 스팅, 엘튼 존, 프린스 등의 음반 믹싱을 담당한 인물로 2002년 재닛 잭슨의 음반을 믹싱해 그해 그래미상을 받았다.

이승철의 소속사인 루이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유명 기타리스트인 샘리의 소개로 스티브 하치와 손을 잡게 됐다"며 "그는 이승철 씨의 녹음실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믹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철 씨의 노래를 들은 후 그는 "내가 들은 동양 가수의 목소리 중 가장 곱고 세련된 음색"이라고 극찬했다. 또 대개 믹싱 작업은 미국의 녹음실에서 하지만 그는 녹음실을 둘러보고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굳이 미국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어 국내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집 타이틀곡은 신예 작곡가 홍진영 씨가 작곡한 '소리쳐'.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곡으로 애절한 멜로디에 이승철 특유의 감성적인 음색이 어우러졌다.

이승철은 새 음반 홍보를 위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도입한다.

8집 출시일에 맞춰 21일 전국 영화체인인 CGV 매점에서 음료 컵 뚜껑에 미니 CD를 넣어 '이승철 콤보 세트'를 판매한다. 미니 CD에는 8집 신곡 두 곡과 함께 '소리쳐'와 영화 '청연' 주제가인 '서쪽하늘'의 뮤직비디오가 포함돼 있다.

10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일본침몰	9만9천800	47만9천000
2	괴물	7만2천900	1천251만1천500
3	천하장사 마돈나	6만6천000	23만4천000
4	예의 없는 것들	5만6천800	74만9천200
5	해변의 여인	4만7천600	13만3천600
6	레이크 하우스	4만3천400	10만3천900
7	각설탕	2만4천000	138만4천000
8	아이스케키	1만6천800	44만7천300
9	13구역	1만5천900	21만2천700
10	원탁의 천사	1만1천200	44만6천900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주몽	MBC	40.3
2	소문난 칠공주	KBS2	34.9
3	아시안컵축구예선 〈대한민국:이란〉	KBS2	34.5
4	열아홉순정	KBS1	30.0
5	돌아와요순애씨	SBS	25.4
6	사랑과 야망	SBS	23.9
7	내사랑 못난이 2부	SBS	23.7
8	개그콘서트	KBS2	21.9
9	상상플러스	KBS2	21.9
10	순간포착세상에…	SBS	20.6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코모도vs킹코브라	액션
2	던전드래곤2 : 용의 제국	액션
3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공포
4	강적	액션
5	구타유발자들	코믹스릴러
6	아파트	공포
7	아랑	공포
8	달콤, 살벌한 연인	로맨틱스릴러
9	맨발의 기봉이	드라마
10	인사이드 맨	스릴러

〈자료제공:씨네타운〉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비행기	거북이
2	미친 사랑의 노래	씨야
3	연예인	싸이
4	홀드 더 라인	조PD, 브라운아이드걸스
5	그래서…	타이푼
6	사랑 안해	백지영
7	투모로	환희
8	사랑을 찾아서	MC 더 맥스
9	메이비 아이 러브 유	걸프렌즈
10	사랑한다는 말	김종국

〈자료제공:벅스뮤직〉